

제 목	국 문	경희의대 3,4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교과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		
	영 문	An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 about the Curriculum of College of Medicine, Kyung Hee University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윤태영, 최중명, 조우현, 박순영, 유동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		
	영 문	Tai Young Yoon, Joong Myung Choi, Woo Hyun Cho, Soon Young Park, Dong Joon Lew <i>College of Medicine, KyungHee Univ.</i>		
분 야	보 건 관 리	발 표 자	윤 태 영	
발표 형식	포 스텐	발표 시간		
진행 상황	연구완료 (), 연구중 (√) → 완료 예정 시기 : 년 월			
<p>1. 연구 목적</p> <p>경희의대는 1970년 이전에 설립되어 20여년간 전통적인 교실중심의 교과단위로 교과과정을 유지해 왔는데 최근 의예과 교과과정의 개편과 관련하여 의학과 교과과정 개편작업을 하기 위하여 기존 교과과정에 관한 학생들의 평가 및 필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1995년 6월 한달동안 의학과 강의의 수강이 거의 끝나 임상실습에 들어가기 직전의 의학과 3학년생 93명과 임상실습과정을 거의 마친 의학과 4학년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. 조사대상은 의학과 3,4학년의 재적인원 223명 중 135명(60.5%)이었다.</p>				

3. 연구결과

1)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관련성에 대하여 66.2%가 보통 이상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, 31.2%는 별로 관련없다, 전혀 관련없다는 2.2%였다.

2) 임상 의학을 공부하면서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기초의학과목의 유무에 관한 질문에 97.8%가 있다고 하였으며, 그 순서는 생리학, 해부학, 약리학, 병리학, 생화학의 순이었다.

3) 임상 의학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했던 기초의학과목이 도움이 된 경우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80.2%에서 있다고 하였으며, 생리학, 병리학, 미생물학, 해부학의 순서였다.

4) 임상 의학 강의 중 중복되는 정도에 관한 질문에, 매우 심하다가 22%,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된다가 67%였다. 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① 내과와 외과(소화기계, 내분비계), ② 내과와 비뇨기과(신성 고혈압), ③ 내과, 외과와 비뇨기과(신장이식), ④ 내과와 소아과(심장, 신장, 감염), ⑤ 산부인과와 소아과(태생학) 등 이었다.

5) 통합강의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알고 있다 16.4%, 들어는 보았으나 잘 모르겠다 51.2%, 처음 들어본다가 2.4%였다.

6) 통합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29.3%, 상당히 필요하다가 52.4%였다.

7) 현행 의학과 교과과정 중 개선해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

①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높은 주요 질환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.

② 소위 마이너 과목은 중요한 내용만 요약하여 강의

③ 불필요하게 수업시간이 많아 자율적인 학습이 어렵다

④ 교수가 자기의 세부전공분야를 너무 자세히 가르침

⑤ 기초의학교육과 임상의학의 연계성이 없다

등의 내용이었다.

4. 고찰

학생들의 현행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는 최근 의학교육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 부합되는 것이 많았으며, 특히 통합강의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.